

뇌신경계 질환의 진단용 바이오마커



이형근(좌) / 지용우(우) 교수
의과대학 안과학교실

기술설명

본 발명은 환자의 안구 방수(aqueous humor)에서 채취한 샘플을 활용하여 뇌신경계 질환을 진단하는 바이오마커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바이오마커는 뇌신경계 질환의 발병 여부 혹은 발병 가능성을 조기에 진단하거나, 상기 질환의 경과, 예후 또는 치료 효과에 대하여도 진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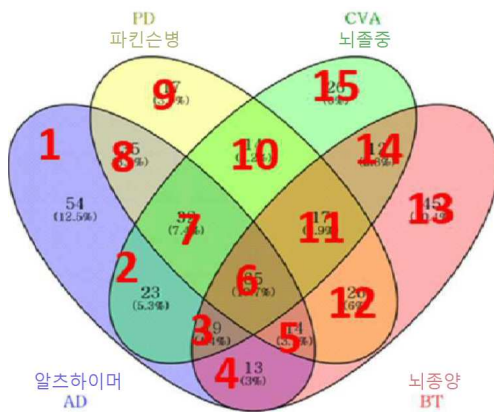


Fig) 알츠하이머(AD), 파킨슨병(PD), 뇌졸중(CVA) 및 뇌종양(BT) 환자 유래의 방수에서 특이적으로 발현 수준이 증가된 바이오마커 단백질 리스트를 정리 후 각 군별 중복 여부를 나타낸 다이어그램

활용성

뇌신경계 질환의 초기 진단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현재 신뢰성 있는 초기 진단 검사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알츠하이머병 및 파킨슨병을 포함하여 다양한 뇌신경계 질환을 초기에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조성물 또는 진단 방법에 대해 개발이 요구된다.

본 발명은 안구의 방수에 있어서 본 발명의 바이오마커 단백질 또는 이를 코딩하는 유전자의 발현 수준을 측정함으로써 뇌신경계 질환 중에서도 특히 알츠하이머의 발병 여부 혹은 발병 가능성을 조기에 진단하거나, 상기 질환의 경과, 예후 또는 치료 효과에 대하여도 진단이 가능하다.

<뇌질환 시장성>

